

## 노인들은 누구와 함께할 때 더 행복할까? 노인의 일상적 대인 상호작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강 승 민

장 재 윤<sup>†</sup>

서강대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60대 초기 노년기 남녀 노인들의 일상에서 노인이 혼자 있는 것이 행복  
한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한지 비교하였고, 만약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  
하다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 지 그리고 성별 조절효과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일  
상재구성법’으로 서울 거주 60대 노인 150명의 평범한 하루 속 대인관계 상황을 직접 조사하  
였고 위계적 선형 모형을 사용하여 노인들은 어떤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남녀 노인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있  
을 때 더 행복을 느꼈으나, 배우자와 함께할 때는 혼자 있는 것과 비교해 행복수준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남녀 샘플을 구분하면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혼자 있  
는 것보다 타인(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지만, 혼자 있을 때가 배우자와 함  
계 있을 때보다 유의수준에 근접하게 더 행복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반면 남성노인들은 혼자  
있을 때와 배우자,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수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행복, 대인 상호작용, 초기 노년기, 성별, 일상재구성법(DRM)

<sup>†</sup> 교신저자: 장재윤,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Tel : 02-705-7956, E-mail : [jych@sogang.ac.kr](mailto:jych@sogang.ac.kr)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 중인 국가이다(강수연, 김호영, 염유식, 2016). 2018년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여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6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4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7).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년기 행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으나(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심리학 분야에서 노년 연구는 필요성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유경, 민정환, 2005). 특히 퇴직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퇴직 이후의 삶이 길어지는 가운데(임지숙, 조효진, 조운진, 2014), 퇴직 후 노년기 삶이 시작되는 60대 초기 노년기에 대한 연구 관심과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Hyde, Wiggins, Higgs, & Blane, 2003). 초기 노년기(early old age)에 사람들은 은퇴, 소득감소, 무료함, 질병, 자녀 독립과 지인 사망 등 생애 부정적 이슈들을 연쇄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불안, 좌절, 고독, 우울 등 심리적 안녕을 크게 위협받는다(Atchley, 1980). 또한 생활주기(life cycle)와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에 큰 변화를 맞이하기도 한다(Bukov, Maas, & Lampert, 2002). 이 시기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른 연령대의 노인들과 유사하게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혼인상태, 성별, 사회적 네트워크 등(Hyde et al., 2003) 다양한 변인들이 거론된다. 그러나 인구 통계적 요인이나 사회적 조건(societal conditions)이 웰빙에 끼치는 영향력보다 사회적 관계나 맥락(social context) 등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임지숙 등, 2014; Mroczek & Kolarz, 1998; Suh & Choi, 2018)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부조 교환경

험(exchange reciprocity experience)이 노년 초기 삶의 질과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Siegrist & Wahrendorf, 2009)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노년기 사회적 관계 또는 대인 상호작용 경험이 노인의 행복 또는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3).

#### 사회적 관계와 행복의 문화 차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긍정정서 수준이 더 높아진다(Argyle & Lu, 1990; Clark & Watson, 1988; Lucas, Le, & Dyrenforth, 2008). 집단형성과 사회성은 인간의 본유적 진화 속성이며(조궁호, 2017), 집단과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이다(Baumeister & Leary, 1995). 그간 수많은 연구들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강력한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Kushlev & Heintzelman, 2018), 특히 면대면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핵심적 역할도 증명하였다(Diener & Seligman, 2002).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양식으로(강수연 등 2016; Pavot, Diener, & Fujita, 1990) 진화적 기본 욕구 행동이자 범문화적인 주요 웰빙 요인 중 하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복 기준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Suh & Choi, 2018). 개인의 자존감과 자율성이 삶의 만족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서양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Diener & Diener, 1995),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소속된 내집단과 조화로운 관계적 자아가 중요시되며(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행

복추구의 기준도 조화롭고 원만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가까운 주변의 사회적 평가와 인정이 강조된다(Suh & Choi, 2018). 예를 들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경험한 경우와 낯선 이와 경험한 경우 등 누구와 함께 경험했는가에 따라 경험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르다는 연구들이 있다(Oishi, Diener, Scollon, & Biswas-Diener, 2004; Suh & Choi, 2018). 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행복 정서는 사건의 '내용' 보다 사건의 '대상'이 더 중요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수행되는 노년기 행복 연구도 노인의 활동내용과 더불어 대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Oerlemans, Bakker 및 Veenhoven은 2011년 네덜란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더 행복한지 연구한 결과, 5가지 범주(사회활동, 물리적 활동, 휴식활동, 인지활동, 가사활동)의 일상 활동 중에서 사회활동(social activity)을 할 때 행복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의 노인이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누구와 함께 할 때' 더 행복해 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재구성법(DRM, Day Reconstruction Method, 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 Stone, 2004)을 활용하여 한국 노인의 평범한 하루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초기 노년기 노인들의 일상적인 사회관계 속 대인 상호작용과 행복감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인들이 실제 평범한 하루 일상 속에서 주로 혼자 지내는지 아니면 타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욱 많은지에 대해 살펴보고, 혼자 있을 때보다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더 행복해 지는지에 대

해 조사하였다. 또한 초기 노년기 한국 노인들은 일상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지는지, 또는 성별에 따라 행복감이 증진되는 상대방이 다른 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 초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와 행복

사회적 관계는 친밀도에 따라 동심원 또는 위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호위대 모형(convoy model, Antonucci, Fiori, Birditt, & Jackey, 2010) 또는 위계적 보상모형(hierarchical compensatory model, Cantor, 1991)이라 한다. 가장 친밀한 집단인 1차적 친밀집단은 배우자와 가족을 토대로 구성되며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이다. 2차적 친밀집단은 친구, 이웃 및 지인 등 상대적으로 관계 거리가 먼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차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이다(Chen & Feeley, 2014). 노인들도 이와 같은 위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데(Lee & Szinovacz, 2016) 사회적 네트워크는 노인의 긍정정서, 삶의 만족, 자존감 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Litwin, 2001). 그 중에서도 특히 1차적 친밀집단인 가족 구성원들은 전통적으로 노인 돌봄의 주요 자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Silverstein & Giarrusso, 2010). 가족 구성원은 노인 웰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알려져 있으며(Ryan & Willits, 2007), 한국에서도 가족관계는 행복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서수균 등, 2013; 이주연, 정혜정 2012; 임지숙 등, 2014).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과 친지 못지않게 노인 주변 이웃과 친구의 지원 및 지지의 중요성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Gardner, 2011). 초기 노년기는 은퇴, 자녀독립, 지인사망 등 인생에 새로운 국면을 맞아 사회적 관계가 변화 및 축소되는 시기며(Cornwell & Waite, 2009), 특히 배우자, 부모, 근로자 등 기존의 역할을 상당부분 상실하기 때문에(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4) 전반적인 웰빙이 감소된다(Barnet & Hyde, 2001). 하지만 새롭게 주어진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감소된 웰빙이 상쇄되어 이전의 웰빙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Halleröd, Örestig, & Stattin, 2013).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여러 연구자들은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친밀집단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노년기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 범위, 및 종류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화권의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diverse network), 친구중심 네트워크(friend focused network), 가족중심 네트워크(family focused network), 고립적 네트워크(restricted/isolated network)의 네 가지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들(social network typologies; Litwin, 2001)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Fiori, Smith, & Antonucci, 2007; Park, Smith, & Dunkle, 2014). 네 가지 사회적 네트워크는 노인의 신체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을 예측하는데, 노인이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 범위가 넓을수록 더 높은 신체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Litwin, 2001). 노년기의 네 가지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은 범문화적으로 나타나지만, 각 네트워크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며 네 유형에 더하여 문화권에 따라 문화 특징적인 네트워크 유형이 더 추가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 고령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한국 노년기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한국의 초기 노년기 노인들(65~74세, 2,501명)의 34%가 친구중심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고, 31%는 배우자 중심 네트워크(couple-focused network)<sup>1)</sup>라는 독특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19%가 고립된 네트워크에 속해있고, 오직 16%만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고 발표했다(Park et al., 2014). 친구와 이웃 중심적인 서구 노인들(Fiori et al., 2007) 또는 가족 중심적인 이스라엘, 중국, 일본 노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 초기 노년기 노인들은 전체 중 50%가 배우자 중심 네트워크에 속하거나 고립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고 있었다(Park et al., 2014).

#### 초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와 행복: 성차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다르다. 성별에 따라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를 느끼는 정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경험했을 지라도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웰빙 경험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Mroczek & Kolarz, 1998). 보통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주관적 안녕감도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불리한 사회적 지위, 성차별에

1) 기존 연구에서 '가족중심 네트워크'에 속한 노인들은 기혼상태, 대가족 형성, 성인 자녀와 근거리 거주, 및 잦은 접촉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한국의 초기 노년기 노인들은 대다수 기혼상태이나, 가족크기, 성인 자녀 거주지, 및 접촉빈도가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가족중심 네트워크에 편입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한국 특징적인 네트워크로 '배우자 중심 네트워크'를 별도로 제시한 것이다.

기인한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 및 연금 수준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Pinquant & Sörensen, 2001). 한국 노인들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살아왔으며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 사회적 역할과 관습적 과제를 요구받았다(서수균 등, 2014). 특히 한국 여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정서표현 억압과 부정적 정서 유발 경험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유경, 민정환, 2005) 한국 노년기 정서 특성 연구에서 성별의 구분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정순돌, 2007).

한편, 성차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1차적 친밀집단인 가족관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다. 남성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정여진, 안정신, 2010; Pinquant & Sörensen, 2001), 퇴직 후에도 집 보다는 밖에서 소일거리를 찾거나 정기적 모임을 갖는 편이며(Bukov et al., 2002), 성인 자녀나 이웃보다는 친구들과 더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Litwin, 2001). 그러나 그 우정관계가 여성 노인들만큼 친밀하지는 않으며(Pinquant & Sörensen, 2001), 가까운 친구의 유무가 우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Antonucci, Lansford, & Akiyama, 2001). 남성노인은 가정에서도 여성에 비해 자녀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하며 가족의 지지 및 지원 획득이 적은 편이다(Pinquant & Sörensen, 2001). 은퇴 초기 사회활동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가족 내에서 기존 사회기능을 대체할 역할을 찾지 못하는 남성들은 무기력, 고립, 및 상실감을 겪을 우려가 큰데(두송화, 장재윤, 2015) 이 경우 대다수는 배우자에게 많이 의존한다(서수균 등, 2013; 임지숙 등, 2014). 기혼 남성노인은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자원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Pinquant & Sörensen, 2001) 미혼, 별거, 이혼, 사별한 남성노인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유의하게 낮고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Mroczek & Kolarz, 1998) 대신 사별의 고통이 여성보다 더 큰 편이라고 한다(Moen, 1996). 반면, 여성노인은 친애육구가 높아 남성보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와 사회적 지지가 넓고 강하다(임지숙 등, 2014; Pinquant & Sörensen, 2001).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통합감(social integration)은 여성노인들의 삶 만족과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Pinquant & Sörensen, 2001), 예를 들어 여성노인은 이웃 주민이나 성인 자녀와 더 자주 접촉하고 손자녀 돌보기나 봉사활동과 같은 돌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Bukov et al., 2002). 또 단순히 자매가 존재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웰빙감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Ryan & Willits, 2007). 게다가 보통 은퇴를 경험하는 남성노인과 달리, 여성노인의 역할은 가정 내에서 비교적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노인은 남성에 비해 가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Pinquant & Sörensen, 2001) 성인자녀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인자녀의 가사와 보육을 돕는 편이다(Silverstein & Giarrusso, 2010). 한국 노인들도 가족들과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행복감을 높여가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남성노인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한편, 여성노인은 특히 자녀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제시한다(임지숙 등, 2014; 정순돌,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 연구가설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초기 노년기 노인들의 대인 상호작용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1차적 친밀집단과 2차적 친밀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가족 구성원으로 후자는 '지인 범주'로 구분된다. 또한 노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와 역할이 매우 다르므로 각 가족 구성원들은 노인에게 상이한 사회적 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홍순혜, 1999)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1차적 친밀집단인 가족 구성원에서 배우자를 분리하여 노인의 일상에서 배우자가 미치는 행복감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국 가족 구성원에서 배우자를 구분하여 별도 '배우자 범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직계 및 방계 가족 원들은 모두 '가족 범주'에 소속되었다.

**가설 1.** 초기 노년기 노인들은 일상적 대인 관계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 것이다.

**가설 2.** 초기 노년기 노인들은 일상적 대인 관계에서 2차적 친밀집단인 지인보다 1차적 친밀집단인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 것이다.

**가설 3.** 초기 노년기 노인들이 일상적 대인 관계에서 더 행복감을 느끼는 1차적 친밀집단 대상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가족과 함께할 때,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할 때 더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 방 법

## 연구방식 및 참가자

초기 노년기 노인들이 평범한 일상 속 대인 상호작용 시 경험하는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에 일상재구성법으로 수집한 노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상재구성법이란 참여자가 어제 하루를 회고하면서 시간 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화별로 일상을 작성하고 당시 느낀 정서 등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왜곡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참여자의 일상을 방해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며 (Robinson & Clore, 2002) 연속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행동과 정서를 일목요연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실용적인 연구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조사 회사를 통해 모집하였다. 모집된 참여자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60~69세 (평균 64.53세, SD=2.49)의 초기 노년기 노인 150명(남녀 각각 75명)으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혼이었다. 또한 다수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77%),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다수가 보통(58명, 39%) 또는 좋은 편(61명, 41%)이라 응답하였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85명, 57%), '여유가 있는 편'(28명, 19%) 그리고 '조금 어렵다'(25명 17%)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일화 작성 절차

참가자들을 조사 회사 회의실에 모이도록 한 후, 조사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경험한 일화들을 회상하도록 유도하였다. 여러 일화들로 연결된 어제 하루를 편의상 오전, 오후, 저녁 범주로 나누어 시

간 순으로 일화들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개별 일화는 보통 15분에서 2시간 정도 지속되며, 각 일화의 단위는 활동 종료와 시작, 장소 변경, 상호작용 중인 상대방 변경 등을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화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각 일화마다 적절한 제목(예: 점심식사, TV 시청, 등산모임 가기 등)을 기재하고, 대략적인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시와 분 단위로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각 일화를 작성할 때 혼자 있었는지 및 타인과 함께 있었을 경우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표기하고 당시 느낀 정서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제 응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노인 참가자가 응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노인들의 이해 수준을 감안하여 연구 보조자가 직접 개입해 설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화 작성 말미에는 어제 하루가 노인들의 평상시 일상을 대표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제 하루가 평소와 다르지 않고 평범했는지 여부(예, 아니오)'를 질문했는데, 전체 참여자 중 약 80%가 조사 당일의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응답했다<sup>2)</sup>.

일화 작성 이후에는 연령, 성별, 혼인관계, 교육수준 등 인구 통계적 문항과 주관적 건강 및 경제 상태를 설문하였다. 모든 절차 종료 후에는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 측정도구

2) DRM을 사용한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와 같이 '하루'만을 조사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Kopperud & Vitters, 2008; Srivastava, Angelo, & Vallereux, 2008; Stone, Schwartz, Schkade, Schwarz, Krueger, & Kahneman, 2006).

#### 상태적 행복 정서

각 일화마다 '행복한', '화가 나는', '불안한' 등의 정서 형용사 9개를 제시하여 일화에서 느낀 정서들을 1점(전혀 못 느꼈다)에서 7점(강하게 느꼈다)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이라는 정서 형용사 응답을 상태적 행복(momentary happiness)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최근 웰빙 정서를 반복 측정하는 DRM 기반 연구들은 다양한 긍정 정서를 측정하지 않고, 각 일화마다 응답한 '행복' 정서 한 가지 문항 반응만을 종합해 개인 내 상태적 행복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도 한다(Oerlemans & Bakker, 2014).

#### 대인 상호작용의 유무

개별 일화마다 참가자가 혼자였는지('예', '아니오'로 응답)를 질문했으며, 혼자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던 경우는 '대상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한 것'으로 보고 1로 더미 코딩하였다. 즉, 타인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던 것만으로도 '대인 상호작용'으로 보았다(Srivastava et al., 2008).

#### 상호작용의 대상 범주화

일화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경우 누구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선택지('배우자', '옛 직장동료', '자녀', '손자녀', '부모', '친구', '친척', 및 '기타')를 제시하였으며 여러 명과 함께 있었던 경우 함께 있던 이들 모두를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을 토대로 개별 일화 내에서 함께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네 가지 범주 1) '혼자' 2) '배우자' 3) '가족' 4) '지인'로 구분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배우자'를 가족에서 분리해 개별 범주로 두었는데, 배우자는 한국 초기 노년기에 가장 많

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의지하는 대상으로서 (Park et al., 2014) 노인의 일상적 행복감에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범주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인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와 친척이 모두 포함되었다. 또한 ‘지인’ 범주에는 친구, 옛 직장동료 외에 기타 선택지에 기입한 현 직장동료, 이웃주민, 동호회원, 종교인, 각종 모임 회원, 봉사자들, 멘티 등이 전부 포함되었다. 다만 ‘지인’ 범주에서 상호작용 대상이 의료 종사자, 관공서 직원, 강사 및 업무관계인 등인 경우 상호작용의 질이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본 연구 목적과 무관하다는 판단 하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17명이 작성한 24개 일화). 또한 대상 범주별 상호작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고자 일화 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예, 배우자와 지인)이 한 일화 속에서 함께한 경우들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전체 일화 중 약 11%인 162개 일화). 총 150명의 참여자 중 불성실 응답을 한 여성 노인 1명을 제외한 149명이 총 1,445개의 일화를 작성했으며, 부적절한 응답과 일화를 제외하고 남은 총 1,247개의 일화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별 일화마다 참가자와 구체적 상대방 간 친밀도 내지 관계 만족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통제하지 않았는데, 최근 DRM이나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대인관계에서 정서를 반복 측정하는 연구들도 개별 상호작용 대상과의 친밀도나 관계 만족도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무선 통제되었다고 가정한다(예, Kushlev & Heintzelman, 2018; Srivastava et al., 2008).

##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반복적인 응답이 있으므로 이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위계적 선형 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의 다층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층 모형(multilevel model)은 서로 다른 수준의 분석 단위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켜 하위 수준과 상위 수준의 모수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도록 한 통계기법이다. 원래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데, 개인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개인 내에서 반복 측정된 데이터 변화와 개인들 간의 특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인 성별을 상위 수준으로 두고, 개인이 작성한 여러 개의 일화들 속에서 반복 측정된 상태적 행복정서 경험들을 하위 수준으로 하여 개인 특성인 성별과 일화 속 상호작용 상대방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적 행복 정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기초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층분석은 HLM 7 (Raudenbush, Bryk, Cheong, Congdon, & Toit, 2011)을 활용하였다. 한편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자료 분석 시 보통 1수준 설명 변인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전체평균 또는 집단평균으로 중심화를 하지만(grand or group mean centering)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대상과 성별 변인은 연속변수가 아니라 더미 코딩된 범주변수이기 때문에 중심화 보정을 하지 않았다.



## 결 과

### 초기 노년기 대인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행복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

1,247개의 일화(남성 620개, 여성 627개)에서 참가자들은 1인당 최소 2개에서 최대 14개 일화를 작성하였다( $M=8.37$ ,  $SD=2.05$ )<sup>3)</sup>. 또한 일화의 평균 지속시간은 약 1시간 33분( $SD=58$  분)이었고, 최소 5분에서 최대 7시간 30분으로 지속시간 범위의 편차가 컸다. Kahneman 등 (2004)이 제시한 일화 지속시간 가이드라인(15 분~2시간)에서 벗어난 경우는 전체 일화 중 18.1%였는데, 다른 연령층 연구와 달리 노인들의 일상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변화 없이 단조롭기 때문에 일화 지속시간의 길이가 긴 것이라 판단되었다. 전체 일화들 중 노인이 혼자였던 일화는 521개(41.8%)였으며,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응답한 일화는 726개(58.2%)였다. 또한 가장 많은 일화를 함께한 대상은 배우자(376개, 30.2%)였고, 지인(271개, 21.7%), 가족(79개,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차적 친밀집단인 지인(21.7%)보다는 1차적 친밀집단인 배우자 및 가족(36.5%)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며, 가족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30.2%)와 보내

는 일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노년기 한국 노인들에게 배우자 중심 사회적 네트워크가 두드러진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Park et al., 2014).

표 1은 분석에 활용된 일화를 상호작용 대상 범주와 성별에 따라 나누고 상대적 행복수준 및 지속시간의 평균치를 산정한 결과이다. 평균 상호작용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속시간이 가장 긴 상대는 지인, 가족, 배우자 순이었으며, 혼자였던 일화의 지속시간이 가장 짧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배우자나 가족보다 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었지만,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Park et al., 2014)에서 한국 초기 노년기 노인들은 비교적 제한적이고 고립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배우자 중심의 독특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혼자 있는 일화가 가장 많고 누구와 같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와 같이 있는 일화 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대인 상호작용 당시 경험한 상대적 행복수준의 평균을 상대방 범주와 성별에 따라 구분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지인, 배우자, 가족, 혼자 순으로 행복수준이 높았으며 여성노인은 지인, 가족, 혼자, 배우자의 순이었다. ‘배우자’의 순위에서 성차가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남성노인은 배우자와 함께할 때 지인 다음으로 높은 행복수준을 나타냈으나, 여성노인은 배우자 순위가 매우 낮았다. 남성노인은 가족 중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성노인은 자녀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다(임지숙 등, 2014; 정순돌,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Bukov et al., 2002; Pinquart

3) 일화의 활동내용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던 활동들은 TV시청(14%), 대화(12.8%), 먹기(12.7%), 휴식(7.8%), 이동(6.8%), 집안일(6.2%), 식사준비(5.9%)의 순이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TV시청, 먹기, 대화의 순이었고, 가족과 함께할 때는 양육, 식사준비, 대화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또한 친구와 함께할 때는 대화, 일, 먹기의 순이었고, 혼자 있을 때는 TV시청, 먹기, 집안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노년기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매우 평이하고 단조로운 일과를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일화 속 상호작용 대상별 일화 수, 평균 행복수준 및 지속시간

상호작용 대상	성별	일화 수	평균 상태적 행복수준 (SD)	평균 일화 지속시간 (SD)
혼자	남	257	4.71 (1.80)	1.41 (0.95)
	여	264	5.55 (1.60)	1.33 (0.78)
배우자	남	210	5.11 (1.76)	1.50 (0.95)
	여	166	5.40 (1.61)	1.55 (0.86)
가족	남	15	5.00 (1.36)	1.58 (0.84)
	여	64	6.13 (1.19)	1.68 (0.96)
지인	남	138	5.15 (1.56)	2.15 (1.28)
	여	133	6.25 (1.25)	1.63 (0.90)

& Sörensen, 2001).<sup>4)</sup>

표 2는 노인들이 실제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지를 단순 비교 검증한 결과다. 가설 1의 예측대로, 노인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혼자 있는 것보다 타인과 함께할 때 더욱 유의하게 행복하다고 느꼈으며( $t(1247) = 3.76, p < .01$ ). 추가로

4) 전체 일화의 상태적 행복수준 평균에서 성차가 있는 지 확인한 결과, 행복수준은 성별(남 1, 여 2)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8, p < .01$ ).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남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으므로(임지숙 등, 2014; Pinquart & Sörensen, 2001) 측정 방법과 맥락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안녕감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일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했기 보다는 대인 상호작용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상태적 행복수준을 측정한 자료이므로, 남성노인보다 더 많은 관심, 애정 및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여성노인(Pinquart & Sörensen, 2001)이 대인 상호작용에서 상대적으로 상태적 행복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대인 상호작용 유무에 따른 행복수준 차이

성별	상호 작용	일화 수	M(SD)	<i>t</i>
남성	유	363	5.12(1.67)	2.89**
	무	257	4.71(1.80)	
여성	유	363	5.84(1.47)	2.35*
	무	264	5.55(1.60)	
전체	유	726	5.48(1.61)	3.57***
	무	521	5.13(1.75)	

\*  $p < .05$ , \*\*  $p < .01$ , \*\*\*  $p < .001$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성  $t(620) = 2.89, p < .01$ , 여성  $t(627) = 2.35, p < .01$ ].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성별, 연령, 또는 문화권에 관계없이 혼자 있는 것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긍정 정서 수준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들(Argyle & Lu, 1990; Clark & Watson, 1988; Lucas & Dyrenforth, 200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 노인 대인 상호작용과 행복수준의 위계적 선형 모형의 분석결과

상호작용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노인의 행복감의 차이를 개인 일화 단위의 반복 측정 자료로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더미 코딩한 네 가지 대상 범주(혼자, 배우자, 가족, 지인)들은 두 범주씩 짝을 지어 비교 쌍을 만들고(예, 배우자와 지인), 각 비교 쌍에서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 시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지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네 가지 대상 범주에서 총 6가지 비교 조합을 도출하였으며(표 3 참조), 각 비교 쌍에서 어떤 대상 범주가 참가자들에게 더 높은 행복감을 주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행복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각 비교 쌍 별로 상태적 행복수준의 영모형(null model)을 분석하였고, 각 비교 쌍에

서 상태적 행복수준에 대한 개인 내 변량과 개인 간 변량 그리고 집단 내 상관값(ICC, intra-class correlation)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ICC는 노인들이 느낀 상태적 행복감에 대한 전체 변량(개인 내의 1수준 및 개인 간의 2수준 변량 총합) 중 2수준 변량(개인 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ICC는 영모형 이후 투입된 설명변수에 의해 종속변수인 상태적 행복수준의 변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통 5-25%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이희연, 노승철, 2012). 그러나 표 3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ICC 값은 매우 컸는데, 이는 종속변인의 개인차가 매우 커서 단순 회귀 모형 보다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자료임을 의미한다.

표 3. 대상 범주 비교군 별 상태적 행복수준에 대한 영모형의 HLM 추정치

행복정서 상호작용 대상 범주 비교	구분		개인 내 변량		개인 간 변량		ICC	
혼자 대 배우자	남	전체	1.86	1.63	1.39	1.39	43%	46%
	여		1.38		1.20		47%	
혼자 대 가족	남	전체	1.89	1.54	1.36	1.44	42%	48%
	여		1.26		1.08		46%	
혼자 대 지인	남	전체	1.69	1.50	1.34	1.37	44%	48%
	여		1.33		1.00		43%	
배우자 대 가족	남	전체	1.76	1.39	1.19	1.35	40%	49%
	여		1.01		1.41		58%	
지인 대 배우자	남	전체	1.63	1.35	1.16	1.35	42%	50%
	여		1.01		1.41		58%	
지인 대 가족	남	전체	1.21	0.86	1.03	1.31	46%	60%
	여		0.59		1.24		68%	

## 혼자 대 가족, 혼자 대 지인, 혼자 대 배우자의 행복수준 비교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노인들이 일상 속에서 혼자 있을 때와 범주별 타인(배우자, 가족, 지인)과 함께 있을 때 상태적 행복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으며,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 혼자 대 가족

노인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과 함께할 때(혼자=0, 가족=1로 더미코딩) 상태적 행복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그림 1,  $\beta=0.40$ ,  $p<.01$ ). 추가로 남녀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과 있을 때 상태적 행복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beta=0.32$ ,  $p<.05$ ). 남성노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참조).

### 혼자 대 지인

혼자 있을 때보다 지인과 함께할 때(혼자=0, 지인=1로 더미 코딩) 상태적 행복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그림 2,  $\beta=0.32$ ,  $p<.01$ ).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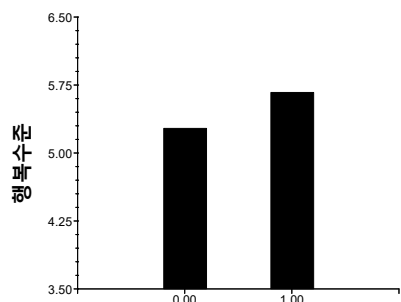


그림 1. 혼자 있을 때 또는 가족(1)과 함께할 때 (남녀)

그림 1. 혼자 있을 때와 가족과 함께할 때의 행복수준 차이

분석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했는데, 여성노인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지인과 있을 때 상태적 행복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beta=0.42$ ,  $p<.01$ ). 남성노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참조).

### 혼자 대 배우자

노인이 혼자일 때와 배우자와 함께할 때(혼자=0, 배우자=1로 더미코딩)의 상태적 행복수준은 이전 결과들과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의한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났다(그림 3,  $\beta=0.43$ ,  $p<.05$ ). 이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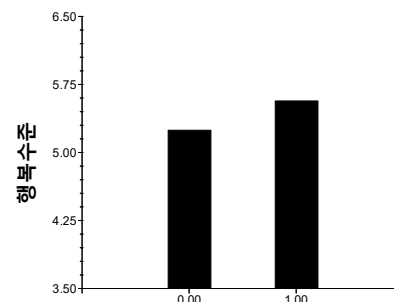


그림 2. 혼자 있을 때 또는 배우자(1)와 함께할 때 (남녀)

그림 2. 혼자 있을 때와 지인과 함께할 때의 행복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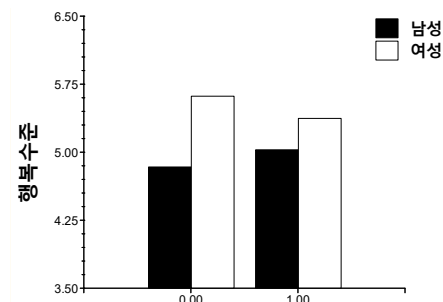


그림 3. 혼자 있을 때 또는 배우자(1)와 함께할 때

그림 3. 혼자 있을 때와 배우자와 함께할 때의 행복수준 차이

표 4. 혼자 대 가족과 상호작용 시 상태적 행복정서에 대한 위계적 선택 모형의 분석결과

	영모형(남녀통합)			주효과 모형(남녀)			성별 조절모형(남녀)			영모형(남)			주효과 모형(남)			영모형(여)			주효과 모형(여)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절편	5.33	0.12	45.13**	5.27	0.12	43.84**	3.96	0.38	10.44**	4.84	0.17	28.29**	4.82	0.17	27.65**	5.76	0.14	40.19**	5.70	0.15	38.53**
상호작용				0.40	0.15	2.64**	0.38	0.70	0.54				0.35	0.34	1.03				0.32	0.16	1.98*
성별							0.87	0.23	3.79**												
상호작용 × 성별							-0.03	0.37	-0.08												
1수준 분산	1.54			1.53			1.53			1.89			1.88			1.26			1.25		
2수준 분산	1.44**			1.39**			1.21**			1.36**			1.36**			1.08**			1.05**		
편차	2168.86			2163.96			2149.63			1030.10			1029.39			1112.04			1109.12		
자유도	138			138			137			67			67			70			70		

\*\*p < .01, \*p < .05, 전체 n=139 전체 일화 수=600, 남자 n=68, 남자 작성 일화 수=272, 여자 n=71, 여자 작성 일화 수=328

표 5. 혼자 대 지인과 상호작용 시 상태적 행복정서에 대한 위계적 선행 모형의 분석결과

영모형(남녀통합)				주효과 모형(남녀)				성별 조절모형(남녀)				영모형(남)				주효과 모형(남)				영모형(여)				주효과 모형(여)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절편	5.36	0.11	48.50**	5.25	0.12	43.67**		4.01	0.38	10.64**		4.93	0.16	31.79**		4.84	0.17	28.02**		5.79	0.14	42.26**		5.66	0.14	40.18**	
상호작용				0.32	0.12	2.78**		0.12	0.37	0.32						0.26	0.17	1.59					0.42	0.14	2.91**		
성별								0.83	0.23	3.61**																	
상호작용×성별								0.15	0.23	0.64																	
1수준 분산	1.50			1.49				1.49				1.69				1.68				1.33				1.31			
2수준 분산	1.37**			1.33**				1.12**				1.34**				1.31**				1.00**				0.93**			
편차	2813.01			2804.30				2786.69				1440.26				1437.67				1346.91				1338.57			
자유도	138			138				137				70				70				67				67			

\*\*p < .01. \*p < .05. 전체 n=139, 전체 영화 수=792, 남자 n=71, 남자 작성 영화 수=395, 여자 n=68, 여자 작성 영화 수=397

\*\* $p < .01$ , \* $p < .05$ , 전체  $n=139$  전체 일화 수=792, 남자  $n=71$ , 남자 작성 일화 수=395, 여자  $n=68$ , 여자 작성 일화 수=397

표 6. 혼자 대 배우자와 상호작용 시 상대적 행복정서에 대한 위계적 선택 모형의 분석결과

	영모형(남녀통합)			주효과 모형(남녀)			성별 조절모형(남녀)			영모형(남)			주효과 모형(남)			영모형(여)			주효과 모형(여)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절편	5.22	0.11	48.13**	5.22	0.12	43.94**	4.06	0.36	11.33**	4.92	0.15	31.82**	4.84	0.17	28.35**	5.52	0.14	38.58**	5.62	0.15	37.62**
상호작용				-0.02	0.12	-0.13	0.62	0.32	1.91*				0.19	0.18	1.09				-0.25	0.14	-1.71
성별							0.78	0.23	3.44**												
상호작용 × 성별							-0.43	0.21	-2.05*												
1수준 분산	1.63			1.63			1.63			1.86			1.86			1.38			1.37		
2수준 분산	1.39**			1.39**			1.29**			1.39**			1.37**			1.20**			1.21**		
편차	3238.49			3238.47			3226.29			1736.93			1735.35			1484.46			1481.54		
자유도	146			146			145			73			73			72			72		

\*\*p < .01, \*p < .05, 전체 n=147 전체 일화 수=897, 남자 n=74, 남자 작성 일화 수=467, 여자 n=73, 여자 작성 일화 수=430

혼자 있을 때와 배우자와 함께할 때 유의한 행복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노인은 혼자 있을 때 유의수준에 근접하게( $\beta = -0.25, p = .088$ ) 더 행복했다(표 6 참조).

결국 노인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배우자, 가족, 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1은 혼자나 지인 및 혼자나 가족 비교에서는 지지되었으나, 혼자나 배우자 비교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대신 배우자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남녀 표본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에서 여성노인은 가설 1과 달리 배우자와 함께할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유의수준에 근접하게 더 행복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추가로 시행한 성차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여성노인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 지인과 함께할 때 유의하게 더 행복했으나 배우자와 함께할 때는 혼자 있을 때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남성노인은 혼자 있을 때와 가족, 지인, 배우자와 함께할 때 행복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인 대 배우자, 배우자 대 가족, 지인 대 가족의 행복수준 비교

가설 2와 3을 검증하기 위해 노인들이 일상적 대인관계 속에서 2차적 친밀집단보다 1차적 친밀집단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한지 분석하였다. 먼저 가설 2를 확인하기 위해 2차적 친밀집단인 지인과 1차적 친밀집단인 배우자 또는 가족을 비교하였으며,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1차적 친밀집단인 배우자와 가족을 비교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별에 따라 더 행복감을 느끼는 친밀집단 상대방이 다른 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 지인 대 배우자

이번에는 노인이 지인과 함께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고 배우자와 함께한 경우를 1로 더미 코딩하여 상태적 행복수준을 비교했는데, 그림 4와 같이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배우자보다 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했다(그림 4 상,  $\beta = -0.32, p < .01$ ). 그러나 여기서도 유의한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났다(그림 4 하,  $\beta = -0.53, p < .05$ ). 따라서 추가로 성별을 구분하여 재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은 배우자보다 지인과 함께 있을 때 상태적 행복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beta = -0.58, p < .01$ ) 남성노인은 지인과 배우자 간 상태적 행복수준 차이가 유의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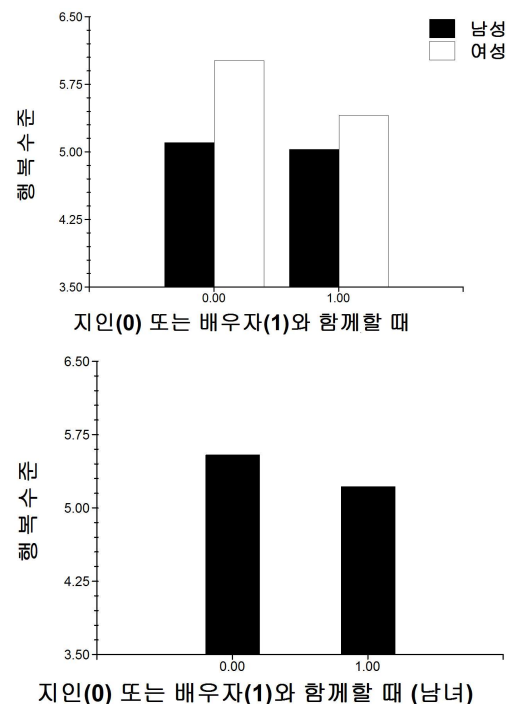


그림 4. 지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할 때 행복수준 차이 - 성별 통합(상) 및 성별 조절효과(하)



표 7. 지인 대 배우자와 상호작용 시 상대적 행복정서에 대한 위계적 선행 모형의 분석결과

	영모형(남녀통합)				주효과 모형(남녀)				성별 조절모형(남녀)				영모형(남)				주효과 모형(남)				영모형(여)				주효과 모형(여)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절편	5.36	0.11	48.0**		5.54	0.13	42.80**		4.19	0.39	10.63**		5.06	0.15	33.87**		5.11	0.18	28.08**		5.68	0.16	35.80**		5.99	0.17	34.55**	
상호 작용					-0.32	0.12	-2.66**		0.45	0.37	1.21*						-0.08	0.18	-0.45						-0.58	0.16	-3.69**	
성별									0.91	0.25	3.62**																	
상호 작용 × 성별									-0.53	0.24	-2.19*																	
1수준 분산	1.35				1.35				1.34				1.63				1.63				1.01				0.98			
2수준 분산	1.35**				1.30**				1.18**				1.16**				1.16**				1.41**				1.27**			
편차	2257.44				2250.43				2237.70				1258.69				1258.49				976.68				963.49			
자유도	138				138				137				69				69				68				68			

\*\* $p < .01$ , \* $p < .05$ , 전체  $n=139$  전체 일화 수=647, 남자  $n=70$ , 남자 작성 일화 수=348, 여자  $n=69$ , 여자 작성 일화 수=430

표 8. 지인 대 가족과 상호작용 시 상태적 행복정서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의 분석결과

영모형(남녀통합)				주효과 모형(남녀)				성별 조절모형(남녀)				영모형(남)				주효과 모형(남)				영모형(여)				주효과 모형(여)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절편	5.67	0.12	47.69**	5.67	0.13	44.71**	4.32	0.38	11.46**	5.19	0.17	30.65**	5.21	0.18	29.51**	6.05	0.15	39.83**	6.09	0.16	37.97**						
상호작용				-0.03	0.18	-0.15	-0.21	0.71	-0.29				-0.17	0.33	-0.53				-0.13	0.18	-0.72						
성별							0.89	0.24	3.75**																		
상호작용×성별							0.03	0.40	0.09																		
1수준 분산	0.86			0.86			0.87			1.21			1.21			1.21			0.59			0.59					
2수준 분산	1.31**			1.31**			1.09*			1.03**			1.03**			1.03**			1.24**			1.24**					
편차	1131.48			1131.46			1116.94			524.00			523.79			575.70			575.18			575.18					
자유도	121			121			120			55			55			65			65			65					

\*\*\*p < .01, \*\*p < .05, 전체 n=122 전체 일화 수=350, 남자 n=56, 여자 n=66, 여자 작성 일화 수=197

\*\* $p < .01$ , \* $p < .05$ , 전체  $n=122$  전체 일화 수=350, 남자  $n=56$ , 남자 작성 일화 수=153, 여자  $n=66$ , 여자 작성 일화 수=197

않았다(표 7 참조).

### 지인 대 가족

가설 2는 노인이 2차적 친밀집단인 지인보다 1차적 친밀집단인 가족(지인=0, 가족=1로 더미코딩)과 함께할 때 더욱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가족과 지인의 상호작용 비교 결과 상태적 행복수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로 성별을 구분하여 재분석한 결과에서도 남녀노인 모두 유의한 행복수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 참조).

### 배우자 대 가족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배우자와 가족(배우자=0, 가족=1로 더미코딩)의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노인들은 배우자보다 가족과 함께할 때 상태적 행복수준이 더 높았다( $\beta=0.76, p<.01$ ). 가설 3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경향성은 여성노인의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beta=0.87, p<.01$ ), 남성노인은 상호작용 상대방이 배우자든 가족이든 상태적 행복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참조).

먼저 가설 2에서 노인들은 2차적 친밀집단인 지인보다 1차적 친밀집단인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할 때 더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지지되지 않았다. 첫째, 배우자와 지인의 비교에서 노인들은 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하다고 했으며, 성별을 구분하여 추가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은 배우자보다 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했고 남성은 지인과 배우자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가족과 지인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추가로 시행한 성별구분 분석도 유의하지 않아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가설 3은 가설 2의 지지를 전제로 제기되었지만, 가설 2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1차적 친밀집단 관계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상호작용 상대방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 비교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할 때, 여성은 배우자를 뺀 가족 구성원과 함께할 때 더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여성노인은 배우자보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의 일부가 지지되었으나, 남성노인은 가족과 배우자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초기 노년기 노인들의 평범한 하루 일상 중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을 크게 1) ‘배우자’, 2)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3) 친구, 동료, 이웃 등을 포함한 ‘지인’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노인이 ‘혼자’ 있을 때와 이 세 범주 중 한 대상과 함께할 때 행복감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성별이 1차적 친밀집단의 대인 상호작용에서 느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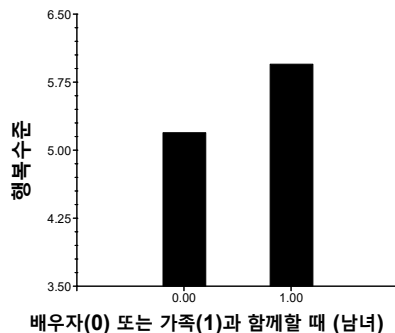


그림 5.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할 때 행복수준 차이

표 9. 배우자 대 가족과 상호작용 시 상대적 행복정서에 대한 위계적 선행 모형의 분석결과

	영모형(남녀통합)			주효과 모형(남녀)			성별 조절모형(남녀)			영모형(남)			주효과 모형(남)			영모형(여)			주효과 모형(여)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추정치	SE	t
절편	5.36	0.12	44.18**	5.19	0.13	40.45**	4.77	0.39	12.10**	5.09	0.17	29.72**	5.06	0.18	27.70**	5.61	0.17	33.62**	5.33	0.20	26.97**
상호작용				0.76	0.21	3.63**	-0.27	0.87	-0.31				0.23	0.39	0.58				0.87	0.23	3.83**
성별							0.29	0.25	1.13												
상호작용																					
작용							0.55	0.49	1.14												
×성별																					
1수준 분산	1.39			1.34			1.34			1.76			1.75			1.01			0.92		
2수준 분산	1.35**			1.34**			1.28**			1.19**			1.21**			1.41**			1.42**		
편차	1616.09			1603.15			1599.50			835.32			835.08			763.38			747.70		
자유도	124			124			123			61			61			62			62		

\*\* $p < .01$ , \* $p < .05$ , 전체  $n=125$  전체 일화 수=455, 남자  $n=62$ , 남자 작성 일화 수=225, 여자  $n=63$ , 여자 작성 일화 수=230

는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 관계의 형성, 유지, 및 강화는 생존번식에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할 때 행복감이 유의하게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Argyle & Lu, 1990; Clark & Watson, 1988; Lucas & Dyrenforth, 2008). 따라서 가설 1은 노인들도 성별과 관계없이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남녀 통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측대로 혼자 있을 때보다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할 때 상태적 행복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한 경우는 유의한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남녀 표본을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할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복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성은 배우자와 함께할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유의수준에 근접하게 더 행복하였다.

혼자 있을 때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행복하다는 노인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혼자 있는 것보다 사회적 소속 욕구가 충족될 때 더욱 행복하다는 기존 연구결과(Baumeister & Leary, 1995)에 반하는 점과 한국 초기 노년기 노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의지하는 대상이 배우자라는 선행 연구결과(Park et al., 2014)를 고려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여성노인은 배우자와 함께할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유의수준에 근접하게 더 행복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배우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장시간 제공하는 편이며, 배우자 보살핌에 대한 많은 부담과 우울 및 스트레스를 느낀다

(Silverstein & Giarrusso, 2010). 더군다나 한국 여성들은 노년기에도 전체 가사의 약 70%를 담당하는 등 가정 내 불평등한 성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요받는다(서병숙, 김수현, 2000). 오랜 기간 가부장적이며 성차별적인 부부관계 경험을 축적한 가운데(김경미 등, 2011) 노년 초기 은퇴를 맞아 부부가 갑자기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면 부부간 매우 복합적인 긴장과 핵심적 갈등 요소들이 드러날 수 있다(서수균 등, 2013). 본 연구는 대인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정서를 단순 회상을 통해 측정한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어제 일어난 구체적인 일화 속에서 느끼는 상태적 정서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들과 달리, 초기 노년기 여성노인이 일상에서 배우자에게 느끼는 정서를 경험표집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측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Kahenman et al., 2004).<sup>5)</sup>

노년기 배우자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돌봄 자원으로서(Silverstein & Giarrusso, 2010), 자아개념 및 사회 정체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Atchley, 1992) 정서적 안녕감 증진 및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Antonucci & Akiyama, 1995). 본 연구 결과는 보다 높은 부부 자존감과 결혼생활 적응도를 위해 노년 초기 공평하고 유연한 부부 역할의 재정립의 중요성(Lee & Shehan, 1989)을 시사한다.

5) 남성노인 표본만 분석하면, 혼자 있을 때와 가족, 지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할 때를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통 남성은 여성보다 정서를 덜 민감하게 느끼고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편이므로(Gross & Levenson, 1993), 본 연구의 남성 노인들도 여성노인에 비해 대인 상호작용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감 차이에 덜 민감했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가설 2와 3을 통해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지를 각 범주별로 비교하였다. 먼저 가설 2는 노인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2차적 친밀 집단인 지인보다 1차적 친밀집단인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할 때 더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전부 지지되지 않았다. 우선 배우자와 지인 간 비교에서 노인들은 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했다. 이에 대해 추가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은 배우자보다 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해 했으며, 남성은 배우자와 지인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행한 가족과 지인 간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행복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추가로 시행해 본 성별구분 분석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가족이 1차적 친밀집단으로서 노인의 심리적 건강 외에도 성공적 노화, 삶 만족도 및 행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한국 노년기 사회관계의 중심은 가족과 배우자라고 강조해 왔다(서수균 등, 2013; 이주연, 정혜정, 2012; 임지숙 등, 2014; 정순돌,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횡단적 설문 연구와 다르게 일상재구성법을 활용하여 노인의 대인 상호작용을 구체적인 맥락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 흐름과 달리 노인들이 1차적 친밀집단인 가족이나 배우자 보다 2차적 친밀집단인 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하거나 적어도 가족과 동등한 수준만큼 행복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노인들은 왜 배우자나 가족보다 지인과 함께할 때 더욱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Lee와 Ishii-Kuntz(1987)는 초기 노년기에 친구 또는 이웃과의 상호작용 빈도가 증가할수

록 사기(morale)가 향상되지만, 퇴직 후 잦은 배우자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노인의 사기를 유의하게 저하시킨다고 제안하였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자유선택에 의한 관계이므로 자존감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노년기 사기 진작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의무(obligation) 관계로 사기나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라이나 생명과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발표한 국내 설문 결과에서도 50대 이상 한국 중장년층 여성은 배우자나 자녀보다 이웃이나 지인과 함께할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여성들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감이 낮아질 뿐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며, 특히 육아부담이 있는 경우 자녀 또는 손주와 함께 있는 것을 노동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경제신문, 2017. 7. 28). 또 여성노인은 남성노인 보다 자녀와 더 가깝게 지내지만 그럴수록 자녀에 대한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며 더 높은 수준의 갈등을 지각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만족감이 낮을 수 있다(서수균 등, 2013). 남성노인의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여성성과 수동성이 증가하고 배우자에 대한 의존과 애착이 커질수록 배우자로부터 받는 무시나 욕구좌절 갈등은 높아질 수 있다(서수균 등, 2013). 이에 대하여 Silverstein과 Giarrusso(2010)는 가족 연대성-갈등 모형(family solidarity conflict model)의 '가족에 대한 양가적 감정(ambivalence)'을 소개하였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 따뜻한(warm) 감정과 적대적(antagonistic)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노인들이 기존 연구 결과들과 달리 1차적 친밀집단보다 2차적 친밀집단의 상호작용에서 더 높거나 유사

한 수준의 행복감을 얻는 이유를 밝히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강한 양가적 정서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웰빙을 저하시키므로(Silverstein & Giarrusso, 2010),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양가적 정서와 노년 초기 대인관계 행복감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보다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은 성별에 따라 더 행복감을 느끼는 1차적 친밀집단 대상이 다를 것이며, 구체적으로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할 때 여성은 가족(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과 함께할 때 더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 예측했으나, 부분적으로만 지지가 되었다. 배우자와 가족 간 비교에서 여성노인들은 배우자보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일치했으나, 남성노인들은 가족과 배우자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 관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므로(임지숙 등, 2014; 정순돌,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더 많은 애착과 의존 대상인 배우자와 상호작용시 행복수준이 유의하게 높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노년 초기 한국 남성노인의 일상적인 대인 상호작용 일화를 통해 밝혀낸 본 연구 결과는 남성노인이 배우자와 가족에게서 느끼는 상태적 행복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남성노인들은 가장 가까워서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를 통해 존재감과 안정감을 얻지만, 특히 손주와의 유대관계가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자녀관계의 애정적 결속도 만족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정여진, 안정신, 2010). 손주관계는 성인 자녀와 달리 1차적 책임이 없는 관

계이며 무한한 애정표현이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남성노인들은 성인 자녀보다 어린 손주에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할아버지라는 지위는 노년기 남성에게 자신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제시되고 있다(정여진, 안정신, 2010). 그러나 확대가족 관계(extended family relationships)는 가족사, 정서 공유 또는 상호지원을 근거로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며,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받지 못한 지원은 때로 형제자매를 통해 보충된다는 연구(Ryan & Willits, 2007)도 있으므로, 보다 분명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족 범주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족범주에는 자녀, 손자녀 외에도 형제와 자매 등 다양한 가족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확대 가족관계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 초년기 노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대체적으로 혼자 있기 보다는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할 때 더욱 행복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와 비교해 더 행복한 건 아니었다. 또한 배우자, 가족, 지인 중에서 배우자와 함께할 때보다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할 때 적어도 동등하거나 더 행복했다. 노년기는 배우자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더욱 강해지는 시기로 부부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이주연, 정혜정, 2012). 노년 초기 가장 빈번하며(Park et al., 2014) 중요한 대인관계가 부부관계(서수균 등, 2013)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한국 초년기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할 때 특별히 더 행복하지는 않았다. 비록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그 이유를 밝히지는 못했으나,

남성은 가부장적 권력자로서 우월한 지위구조에 익숙한 반면 여성노인은 수평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결혼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노년초기 부부관계 재정립에 대한 가치관 차이와 갈등이 빚어낸 결과라 예상되었다(서수균 등, 2013). 노년 초기 부부간 유연하고 공평한 역할 정립은 노부부의 자존감과 결혼생활 적응도를 결정하므로(Lee & Shehan, 1989),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부부간의 갈등 및 긴장 관계를 조정하고 평등하고 상호 지원적인 관계를 재확립할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배우자 중심의 고립적이며 제한된 사회적 관계(Park et al., 2014)에서 벗어나 2차적 친밀집단인 친구 또는 이웃 등 다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 활발한 상호작용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안

본 연구가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보다 기존연구가 많이 부족했던 초기 노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초기 노년기는 인생에서 노년기를 처음 맞이하면서 겪는 여러 부정적 사건들을 수용하고 이후 노년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횡단 설문 조사가 아니라, 일상재구성법을 사용하여 초기 노년기 실제 일상생활 속 대인관계 경험에서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생생한 정서자료를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도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진 다양한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초기 노년기 노인들의 대인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대상과 맥락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작용 활동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의 유쾌 수준과 각성 수준 등 정서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하루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처럼 일상재구성법을 사용한 연구 중에는 단 하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으나(예, Kopperud et al., 2008; Srivastava et al., 2008; Stone et al., 2006),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위해 측정기간을 확장하여 더욱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참가자가 상호작용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이나 교류빈도 등은 무선 통제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표집법이나 일상재구성법을 사용한 대인 상호작용 연구들은 친밀감과 교류빈도 등이 무선 통제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따로 측정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기간이 짧았던 만큼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여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각 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시행한다면 한국 초기 노년기 노



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연, 김호영, 염유식 (2016). 노년기 사회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563-587.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 두송화, 장재윤, 이주일 (2014). 일중심성이 중 고령자의 활동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 565-586.
- 두송화, 장재윤 (2015). 은퇴자들의 심리적 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 99-126.
- 서병숙, 김수현 (200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 55-67.
-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3). 한국 노인이 지각한 부부 및 성인자녀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389-412.
-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4). 노부부 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2), 397-418.
- 유 경, 민경환 (2005). 정서 대처 양식과 정서 인식이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18.
- 유 경, 장재윤, 한태영, 이주일 (2014). 활동적 노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노년학*, 34, 613-630.
- 이주연, 정혜정 (2012). 초기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와 성인자녀관계에 따른 집단유형과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 *한국노년학*, 32(4), 975-991.
- 이희연, 노승철 (2012).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경기도 파주: 법문사.
- 임지숙, 조효진, 조윤진 (2014). 중, 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대한 중단모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81-207.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 829-845.
- 정여진, 안정신 (2010). 연구 논문: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35-550.
- 조궁호 (2017). *심리구성체론의 동·서비교: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II - 도덕심리학의 새 지평*.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통계청 (2017). 2017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홍순혜 (1999). 치매 및 우울의심 노인과 정상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9, 113-128.
- 한국경제신문 (2017. 07. 28.) 50대, 배우자보다 지인과 있을 때 가장 행복. A23면.
- Antonucci, T. C., & Akiyama, H. (1995). Convoys of social relations: Family and friendships within a life span context. In R. Blieszner & V. H. Bedford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pp. 355-371). Westport, CT, US: Greenwood Press.
- Antonucci, T. C., Lansford, J. E., & Akiyama, H. (2001).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on well-being of older adul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5, 68-75.
- Antonucci, T. C., Fiori, K. L., Birditt, K., &

- Jackey, L. M. H. (2010). Convoys of social relations: Integrating life span and life course perspectives. In R. M. Lerner, M. E. Lamb, & A. M. Freund (Eds.), *The handbook of lifespan development* (Vol. 2, pp. 434-473).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Argyle, M., & Lu, L. (1990). Happiness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1255-1261.
- Atchley, R. C. (1980).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 Atchley, R. C. (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 Szinovacz, D. J. Ekerdt, & B. H. Vinick (Eds.) *Families and retirement* (pp. 145-158). Newbury Park: sage.
-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 781-79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ach, S. R., Katz, J., Kim, S., & Brody, G. H. (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Bukov, A., Maas, I., & Lampert, T. (2002). Social participation in very old ag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findings from BAS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 P510-P517.
- Cantor, M. H. (1991). Family and community: Changing roles in an aging society. *The Gerontologist*, 31, 337-346.
- Chen, Y., & Feeley, T. H. (2014). Social support, social strain, lonelin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An analysis of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 141-161.
- Clark, L. A., & Watson, D. (1988). Mood and the mundane: Relations between daily life events and self-reported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96-308.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 31-48.
- Diener, E., & Diener, C. (1995). The wealth of nations revisited: Income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 275-286.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 Fiori, K. L., Smith, J., & Antonucci, T. C. (2007). Social network types among older adult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 P322-P330.
- Gardner, P. J. (2011). Natural neighborhood networks-Important social networks in the lives of older adults aging in place. *Journal of Aging Studies*, 25, 263-271.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0-986.
- Halleröd, B., Örestig, J., & Stattin, M. (2013). Leaving the labour market: the impact of exit

- routes from employment to retirement on health and wellbeing in old age. *European Journal of Ageing*, 10, 25-35.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yde, M., Wiggins, R. D., Higgs, P., & Blane, D. B. (2003). A measure of quality of life in early old age: The theory, development and properties of a needs satisfaction model (CASP-19). *Aging & Mental Health*, 7, 186-194.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 1776-1780.
- Kopperud, K. H., & Vittersø, J. (2008). Distinctions betwee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Results from a day reconstruction study among Norwegian jobholder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 174-181.
- Kushlev, K., & Heintzelman, S. J. (2018). Put the phone down: Testing a complement-interfere mode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the context of face-to-face interac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 702-710.
- Lee, G. R., & Ishii-Kuntz, M. (1987). Social interaction, loneliness,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Research on Aging*, 9, 459-482.
- Lee, G. R., & Shehan, C. L. (1989).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44, S226-S230.
- Lee, H. J., & Szinovacz, M. E. (2016). Positive, negative, and ambivalent interactions with family and friends: Associations with well 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 660-679.
- Litwin, H. (2001). Social network type and morale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41, 516-524.
- Lucas, R. E., Le, K., & Dyrenforth, P. S. (2008). Explaining the extraversion/positive affect relation: Sociability cannot account for extraverts' greater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76, 385-414.
- Moen, P. (1996).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retirement, gender, and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 131-144.
- Mroczek, D. K., & Kolarz, C. M. (1998).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333-1349.
- Oerlemans, W. G., Bakker, A. B., & Veenhoven, R. (2011). Finding the key to happy aging: A day reconstruction study of happines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6, 665-674.
- Oerlemans, W. G., & Bakker, A. B. (2014). Why extraverts are happier: A day reconstruction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0, 11-22.
- Oishi, S., Diener, E., Napa Scollon, C., & Biswas-Diener, R. (2004).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of affective experiences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460-472.
- Park, S., Smith, J., & Dunkle, R. E. (2014). Social

- network types and well-being among South Korean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18, 72-80.
- Pavot, W., Diener, E. D., & Fujita, F. (1990). Extraversion and happ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1299-1306.
- Pinquart, M., & Sörensen, S. (2001).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age: A meta-analysi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6, P195-P213.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Raudenbush, S. W., Bryk, A. S., Cheong, Y. F., Congdon, R., & Du Toit, M. (2011).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HLM7).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Robinson, M. D., & Clore, G. L. (2002). Episodic and semantic knowledge in emotional self-report: Evidence for two judg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98-215.
- Ryan, A. K., & Willits, F. K. (2007). Family ties, physic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9, 907-920.
- Siegrist, J., & Wahrendorf, M. (2009). Participation in socially productiv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in early old age: findings from SHAR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 317-326.
- Silverstein, M., & Giarrusso, R. (2010). Aging and family lif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1039-1058.
- Srivastava, S., Angelo, K. M., & Vallereux, S. R. (2008). Extraversion and positive affect: A day reconstruction study of person-environment transac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1613-1618.
- Stone, A. A., Schwartz, J. E., Schkade, D., Schwarz, N., Krueger, A., & Kahneman, D. (2006). A population approach to the study of emotion: Diurnal rhythms of a working day examined with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Emotion*, 6, 139-149.
- Suh, E. M., & Choi, S. (2018).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In E. Diener, S. Oishi, & L. Tay (Eds.), *Handbook of well-being*. Salt Lake City, UT: DEF Publishers.

1차원고접수 : 2018. 11. 28.

수정원고접수 : 2018. 12. 03.

최종게재결정 : 2018. 12. 10.

## Whom Will the Older Adults be Happier With? The Effects of Daily Social Interactions on Momentary Happiness among Korean Early Elders

Seung Min Kang

Jae Yoon Chang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ocial interactions and momentary happiness among Korean early elders in their 60's. We first examined if older adults are happier when interacting with others than being alone. Then we further examined whether their level of happiness differs depending on people they interact with,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Using a day reconstruction method, 150 Korean early elders in their 60's reported the social interactions and momentary happiness experienced during a single day. The results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momentary happi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subjects who were engaged in relationships with friends or family members (excluding spouse) than those that were alone. Overall, elders felt happier interacting with their friends or family members than their spouse. However, gender difference was found: Old Korean women felt happier interacting with their friends or family members than interacting with their spouse. Moreover, they were happier alone than with their spouse at the marginally significant level.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ing alone and interacting with others in the level of momentary happiness for elderly men.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 momentary happiness, daily social interaction, early older age, gender, day reconstruction method(DRM)